

강철구(대신대)

1. 들어가는 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기 연구에서 하나님의 언설(욥 38-42:6)과 욥의 발언(욥 3-37)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주장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세 시간 짜리 자연학습이었다’라는 말이다.¹⁾ 욥은 인문학적인 질문을 했는데,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Chol-Gu Kang, *Behemot und Leviathan.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von Hiob 38,1-42,6* (WMANT 14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의 일부(262-294)를 제96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1) L. Steiger, "Die Wirklichkeit Gottes in unserer Verkündigung", M. Honecker/L. Steiger (ed.), *Auf*

하나님께서서는 자연과학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다.²⁾ 그렇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답변은 축소되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 등장하는 욥의 언설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욥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구조로, 욥의 시문과 하나님의 언설사이를 연결 지으려 한다.³⁾ 이러한 최근의 연구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립시키지 않고, 욥기 전체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보게 만든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합된 관점에서 욥의 발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 상/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2. 하나님 상

욥기에서 하나님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주권자이자, 전능자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욥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dem Wege zu schriftgemäßer Verkündigung (FS H. Diem; München:Chr. Kaiser Verlag, 1965), 160을 참조하라.

- 2)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제기한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인문학적 질문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창조와 구성,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즉 자연과학적인 주제와 관련된 말씀만을 언급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학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 3) O. Keel, *Jahwes Entgegnung an Ijob. Eine Deutung von Ijob 38-41 vor dem Hintergrund der zeitgenössischen Bildkunst* (FRLANT 1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8); K.-T. Ha,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HBS 46; Freiburg/Basel/Wien: Herder Verlag, 2005)을 참조하라.
- 4) 하경택, “욥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22집(2006년 12월), 98-114; 안근조, “욥기 38-41장의 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20집(2006년 4월), 147-166을 참조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상을 언급하고, 이어서 욥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비록 욥이 하나님을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중의 하나다. 이것은 욥의 무죄함과 그의 정의와 관계된 질문이며, 동시에 그것과 연결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⁵⁾

욥의 하나님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욥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탄원했던 ‘행위회복관계’(Tun-Ergehen-Zusammenhang⁶⁾)를 고려해야 한다. 욥은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로서의 ‘행위회복관계’를 보증하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 한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위회복관계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법칙에 의거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⁷⁾”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욥은 그 스스로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제한된 하나님 상들을 그려냈다.

(1) 폭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고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욥의 하나님 상은 욥기 1-2장의 고난을

5) M. Köhlmoos, *Das Auge Gottes*, (FAT 25; Tübingen: Mohr Siebeck, 1999), 317을 참조하라.
6) 독일어 Tun-Ergehen-Zusammenhang은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말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행위회복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J.A. Loader, "Gott mit eigenen Augen sehen: Hiob und die Natur", J.A. Loader (ed.), *Begegnung mit Gott: gesammelte Studien im Bereich des Alten Testaments*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1), 102.

통해서 변화되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가장 자주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상은 ‘폭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욥을 공격했고,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욥이 경험한 폭력적인 하나님 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① 강한 전사로서의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추격하고, 공격하는 전사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욥기 6장과 7장에 걸쳐서 욥은 하나님을 그에게 독화살을 쏘는 궁수에 비유한다.

4 전능자(יְהוָה/좌다이)의 화살(יָצַח/히제)이 내안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나의 호흡이 화살의 독(דְּמָמָה/하마탐)을 마신다.
하나님의 공포가 나에게 엄습해온다. (욥 6:4)

이렇게 욥은 그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간주한다.⁸⁾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질병과 불행을 보내는 신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특정한 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령,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 ‘레세프’(Reschef)가 흑사병과 전쟁의 신으로 활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여겼다.⁹⁾

욥기 7장 12-21절에서도 하나님은 활을 가진 감시자로 등장한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혼돈을 야기하는 존재에 대항하시듯 자신을 대적해서 감시자를 세우고, 잠시의 쉴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탄원한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혼돈의 존재(바다와 바

8) K.-T. Ha, *윳글*, 122를 참조하라.

9) G. Fohrer, *Das Buch Hiob* (KAT XVI; G. tersloh: Gerd Mohn, 1963), 169;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71을 참조하라.

다용)나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도달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산자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로 피하길 원했던 것이다(욥 7:8-9).

위에 언급된 본문 외에도 욥기 13장 23-28절; 14장 18-22절; 16장 7-14절; 19장 7-12절; 30장 18-23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그의 적대자로서 자신을 공격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사냥꾼

욥은 하나님을 ‘전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냥꾼’으로도 묘사한다. 특히 욥기 9-10장에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묘사되고 있다.

16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לְכַפְּרֵי/갓좌할) 저를 사냥하시고
(יִצְרִיבֵנִי/테추테니),
당신을 놀라움으로 저에게 나타내십니다.
17 주께서 저에게 당신의 증인들을 새롭게 세우시며
저에게 당신의 분노를 더욱 발하십니다.
교대¹⁰⁾와 강제노역이 저에게 있습니다. (욥 10:16-17)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먹잇감을 추적하고, 찢고, 죽이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기에,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욥은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사냥감이라도 되듯이 추적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의 삶은 기쁨과 희망이 사라진 삶, 마치 강제노역과 같은 고된 삶이 되었다. 욥기 19장 6절에도 하나님은 그물로 새를 잡는

10) 여기서의 ‘교대’는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고된 노동의 ‘교대근무’를 의미한다.

사냥꾼으로 묘사된다.

③ 불의한 재판관

욥의 탄원 속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도 묘사된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신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법질서(행위회복관계)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즉 의인이든 죄인이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신다. 아니, 오히려 의인을 악인처럼 다루시기도 하신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께 이 땅에 정의와 세상의 질서를 실현시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다.¹¹⁾

22 그것은 한가지다. 그러기에 내가 말한다.

그는 죄 없는 자(צַדִּיק/탐)와 악인(רָשָׁע/라좌)을 멸하신다.

23 재앙이 갑자기 죽음을 몰고 온다면,

그는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는다.

24 이 땅은 악인의 수중(בְּיַד-רָשָׁע/베야드-라좌)에 넘겨졌다.

그가 그의 재판관의 얼굴(פְּנֵי-שֹׁפֵט/프네-솅테하)을 가린다.

그가 아니라면, 누구이겠는가? (욥 9:22-24)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 상에 대한 언급은 욥기 전체에서 가장 신랄한 고발이다.¹²⁾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판관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재판관이 공의와 정의로 악

11) J. van Oorschot, "Menschenbild, Gottesbild und Menschenw rde – ein Beitrag des Hiobbuches", E. Herms (ed.), *Menschenbild und Menschenw rde* (G tersloh: Chr. Kaiser/G tersloher Verlagshaus, 2001), 325를 참조하라.

12) Ebach, 윗글, 98-99; B. Janowski, "Die Erde ist in die Hand eines Frevlers gegeben", H. Lichtenberger/H. Zweigle (ed.), *Wo ist Gott? Die Theodizee-Frage und die Theologie im Pfarramt* (Neukirchen-Vluy: Neukirchener Verlag, 2009), 7을 참조하라.

인을 심판하는 것을 방해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악인이며, 혼돈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의미이다.¹³⁾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 상은 자신의 힘을 오용하고 법질서를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욥 19장, 24:1-12절; 26-27장).¹⁴⁾

④ 변덕스러운 창조주

욥은 하나님을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로 묘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고려 없이, 그가 가진 힘을 제멋대로 행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¹⁵⁾ 욥기 9장 5-10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묘사되지만, 욥의 이러한 발언은 창조주에 대한 찬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욥은 찬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랄하게 탄원하고 있다.

욥기 10장 3-12절에서도 욥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파멸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탄원한다(참조 7:17-18):

8 당신의 손이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습니다.

모두, 그리고 사망에서 - 당신은 나를 삼켜버립니다. (욥 10:8)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모순적이고, 변덕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한다.¹⁶⁾

13) G. Fohrer, 윗글, 210; 하경택, "욥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18집(2005년 8월), 113을 참조하라.

14) 신적인 재판관과 관련된 모티브를 위해서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G. Baumann, *Gottesbilder der Gewalt im Alten Testament verstehen*, (Darmstadt: WBG, 2006), 142.

15) G. Fohrer, 윗글, 207을 참조하라.

16) 윗글, 216을 참조하라.

(2) 욱의 하나님 상에 대한 상반가치의 병존/모순(Ambivalenz)

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탄원하지만, 그럼에도 불순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호소한다. 특히 욱기 16장 18-21절; 17장 3절; 19장 25-27절 그리고 23장 3-7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욱의 모순되고, 상반된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¹⁷⁾

욱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그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공격하시는 적대자이자 폭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경험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욱에게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¹⁸⁾ 그러나 비록 욱이 하나님을 탄원하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욱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¹⁹⁾ 욱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상반가치의 병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욱 자신이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욱기 16장 18-21절에서 욱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재판관과 복수자로 요청하고 있다.²¹⁾ 비록 욱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17) H.C. Schmitt,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450;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Neukirchner-Vluyn: Neukirchner Verlag, 1996), 32를 참조하라.

18) 하나님의 '사탄화'는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욱의 탄원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을 기반으로 유추할 수 있는 말이다. 즉 사탄의 동사 형태인 '사탐'(סַטָּן)은 '적대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의 하나님 스스로가 욱의 적대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을 확인하라. H. Spieckermann, "Die Satanisierung Gottes. Zur inneren Konkordanz von Novelle, Dialog und Gottesreden im Hiobbuch", I. Kottsieper et.al. (eds.), *Wer ist wie du, HERR, unter den G ttern? . Studien zu Theologie und Religionsgeschichte Israels* (FS O. Kais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431 i.a.

19) G. Baumann, *윗글*, 153을 참조하라.

20) *윗글*, 140을 참조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말속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욱의 탄원과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욱의 희망과 신뢰가 담겨있다.

21) J. Ebach, *Streiten mit Gott 1*, 142를 참조하라.

욥기 17장 3절에도 욥은 채무자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인으로 그리고 동시에 채권자로 나타나시기를 희망했다. 마찬가지로 욥기 19장 25-27절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구속자로, 혹은 대속자(גֹּאֲלֵי/고엘)로 보았다. 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26절) 하나님을 대속자, 곧 '구원하는 친척'으로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길 원했다(27절). 욥기 23장 3-7절에서도 욥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처소(혹은, Thron: תְּכֵנִיָּה/테쿠나/보좌)까지 올라가서라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렇듯 욥이 자신의 소원을 언급한 모든 발언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과 관계되어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의 권리를 다시 찾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있다. 왜냐하면 욥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자기 묘사

하나님께서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실패한 대화 후에 폭풍우 속에서부터 답변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욥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실제적인 대화 상대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1) 유일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하신 하나님 사이에, 구원자와 적대자 사이에 어떤 이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여

호와 하나님이다(참조 2:10).²²⁾

욥기에서는 탄원과 희망의 목적지로서 하나님 이외에 더 높은 상급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²³⁾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אל/엘, יהוה/엘로힘, 그리고 יהוה/좌다이)은 욥기 38장 1절에서 언급된 ‘여호와’(JHWH/YHWH)와 동일시된다. 또한 하나님의 언설에서 여호와는 유일한 창조주이자, 세상의 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²⁴⁾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창조와 유지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설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 그려진다. 특히 욥기 38장 4-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주적인 집(땅)을 건설하시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그 집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욥기 9장; 16장 12절 이하에 묘사된 욥의 주장²⁶⁾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계획에 따라서 땅을 튼튼하게 기초 놓으셨다(참조. 시 8편).

욥기 38장 8-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구

22) M. Köhlmoos, *윳글*, 351-352.

23) R. Heckl, *Hiob - Vom Gottesf rchtigen zum Repr sentanten Israels*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216-217을 참조하라.

24)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하들 속에 계신 여호와로서 묘사되는 하늘의 장면에서 이미 유일신론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다. M. Köhlmoos, *윳글*, 361-362를 참조하라.

25) M. Oeming, "Die Begegnung mit Gott", M. Oeming/K. Schmid,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BThSt 4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115를 참조하라.

26) 여기서 욥은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기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순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칙을 제정하심으로 땅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다. 위의 본문의 배경에는 ‘혼돈과 맞서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²⁷⁾에 대한 모티브가 등장한다. 그러나 혼돈과의 전투 모티브는 여기서 아이러니화된다(ironisiert).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혼돈의 존재로서의 바다는 자신의 막강한 힘을 잃고, 갓난아이처럼 옷 입혀지고, 기저귀가 채워졌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바다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진정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이를 돌보는 여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²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욥의 발언에서 하나님은 주로 남성적(전사, 사냥꾼, 추격자등)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자신의 언설에서는 주로 여성의 역할로 등장하신다.

또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창조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졌다. 욥기 38장 12-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밤을 낮으로부터 경계 지으신다. 욥기 9장 24절의 욥의 탄원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땅이 악인의 손에 넘겨져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신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악인들은 땅으로부터 털려나고(13절), 빛은 빼앗겨지고, 든 손(교만)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이다(15절).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의 순환을 통해서 그가 ‘시간의 리듬’을 창조하셨으며, 혼돈의 세력들을 저지하심으로 창조된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욥기 38장 16-18절은 바다의 깊음과, 죽음과 흑암의 문에 대해서

-
- 27) 욥기에 언급된 ‘혼돈과의 전쟁’(Chaoskampf)에 대해서 M. Bauks, “Der eine Schöpfer und die anderen. Die Motive von Schöpfung und Chaos als Hinweise auf die Transformation des Gottesbildes im Hiobbuch”, L. Bormann (ed.), *Schöpfung, Montheismus und fremde Religionen. Studien zu Inklusion und Exklusion in den biblischen Schöpfungsvorstellungen* (BThSt 9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99 i.a.를 참조하라.
- 28)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원을 거부하시고, 자신을 마치 세상의 피조물 중의 하나인 바다를 소중한 아기처럼 다루시는 자상하신 어머니에 비유하신다. F. Gragl, *Das Buch Ijob* (NSK.AT 12;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314를 참조하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 빛과 흑암의 경계(17절),²⁹⁾ 산자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경계 지으신 후에 죽음의 세계로 가는 곳에 문을 세우심으로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사이의 경계를 설정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시는(경계 짓는) 행동을 통해서 땅은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된다.

② 창조세계의 보존자로서의 하나님

육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보존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세계에서 그의 법과 질서를 실현시키시고, 그것으로 땅을 보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법과 질서를 실현시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i. 하늘의 주

욥기 38장 19-38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천체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날씨현상과 그 현상을 일으키는 하늘의 주에 대한 것이다.

먼저 욥기 38장 19-24절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방(19-21절)과 우박, 눈, 비 그리고 바람의 창고(22-24절)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출처에 관한 지식'에 해당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신다.

욥기 38장 25-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양하게 통제하

29)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32009), 84 i.a. 를 참조하라.

시고, 이용하신다. 하나님만이 비, 이슬, 얼음 그리고 서리의 소유권자이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의 “창조 행위들을 보여주신다.”³⁰⁾ 이러한 규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야생 동물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이 제공되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³¹⁾

하나님께서서는 물뿐만 아니라, 별들과 비, 그리고 번개와 관계된 천체도 다스리신다. 욥기 38장 31-35절에 등장하는 별(31-33절), 비와 번개(34-35절)에 대한 이야기는 기후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별들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정하신 시간과 기후의 변화와 관계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과 번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늘의 법칙들’(עֲוֹנוֹת הַשָּׁמַיִם/훗코트 쇠마임)은 땅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위한 것들이다(욥 38:33). 이러한 법칙들을 통해서 천체의 운행이 이 땅에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비와 가뭄의 중단 없는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³²⁾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세상이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다.

욥기 38장 36-38절은 날씨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고대근동의 시간과 날씨의 변화와 관계된 두 마리의 동물, 즉 따오기와 수탉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리의 동물들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다. 이것으로 이 동물들은 날씨 예언자로서의

30) F. Gradl, *룻글*, 316. 욥기 38장 26절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조차도 비를 내리게 함으로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꼭 필요한 초목들이 자라나게 하는 자비로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31) K.-T. Ha, *룻글*, 180-181을 참조하라.

32) C. Houtman, *Der Himmel im Alten Testament. Israels Weltbild und Weltanschauung*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3), 190; G. Fohrer, *KAT XVI*, 508을 참조하라.

역할을 하게 된다.³³⁾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양의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이 땅의 생명체들을 생존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동화된 질서가 있다는 욕의 친구들의 통계학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서를 의심하는 욕의 주장도 거부하신다.³⁴⁾

ii. 동물들의 주(보호자/부양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와 능력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인다(욥 38:39-39:30)³⁵⁾.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생존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먹이, 공간, 힘,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들, 지혜 그리고 통찰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욕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간주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동물들, 즉 자신의 창조물들을 돌보시는 ‘동물들의 보호자’와 ‘부양자’로서 묘사하신다.³⁶⁾ 하나님께

33) 따오기는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범람을 미리 알려주는 성스러운 동물로(참조. P. Riede, "Doch frage die Tiere, sie werden dich lehren. Tiere als Vorbilder und Lehrer des Menschen im Alten Testament", P. Riede (ed.), *Im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OBO 18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17), 수탉은 팔레스티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물로 간주되었다(참조. O. Keel, "Zwei Kleine Beiträge zum Verständnis der Gottesreden im Buch Ijob (38,36f., 40,25)", VT 31 (1981), 221).

34) J. Kegler, "Gott wie ein Mann deine Lenden!...", Die Gottesreden im Ijob-Buch als Aufforderung zur aktiv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Leid", H.M. Niemann/M. Augustin/W.H. Schmidt (eds.), *Nachdenken über Israel, Bibel und Theologie* (FS K.-D. Schunck; Frankfurt/Berlin/Bern: Peter Lang, 1994), 228을 참조하라.

35) R. Lux,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G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236을 참조하라.

36) 참조. M. Oeming, 윗글, 103 i.a.; U. Neumann Gorsolke,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atisch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96 i.a.를 참조하라.

서는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자상하게 돌보심으로 전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는 분이고, 자신의 적대자라는(욥 6:4; 7:20; 13:24) 욥의 고발과 탄원을 거부하신다.³⁷⁾

iii.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악인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욥기 9장 24절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리심으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방해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주장과 비난을 거부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욥기 38장 12-15절에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의의 태양’을 통해서 악인들을 땅에서 털어내시고, 그들의 높아진 팔을 꺾으신다.³⁸⁾ 여기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의 모티브가 발견된다.³⁹⁾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욥 40-41장)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역사의 주’로, 혹은 ‘악에 대한 승리자’로 드러내신다.⁴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신다.⁴¹⁾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정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악인을 굴복시킬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37) R. Lux, *윳글*, 241을 참조하라.

38) O. Keel, *윳글*, 56을 참조하라.

39) B. Janowski, *Konfliktgespr che*, 164를 참조하라.

40) M. Remus, *Menschenbildvorstellung im Ijob-Buch* (Frankfurt/New York: Peter Lang, 1993), 83을 참조하라.

41) M. Köhlmoos, *윳글*, 353-354를 참조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혜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신다.⁴²⁾ 이 두 신비스런 동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욥 40:15-16; 40:24 - 베혜못/ 40:25; 41:25 - 리워야단). 욥기 내에서는 베혜못과 리워야단이 직접적으로 혼돈을 야기한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묘사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베혜못과 리워야단은 지속적으로 땅과 땅의 거주자들을 위협하는 어둠과 혼돈의 세력들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돈의 세력들과 맞서서 창조의 힘으로 인간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동시에 두 신화적인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묘사된다(욥기 40:15; 41:25).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다.⁴³⁾ 왜냐하면 두 혼돈의 세력들은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 앞에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어떤 주권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주’(Herr der Tiere)로서 이러한 신화적인 동물 역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다루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인간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들인 베혜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계속해서 통제하시고, 제어하십시오 써 자신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는 ‘정의의 주’로 묘사하고 있다.⁴⁴⁾

42) D. Michel, *Israels Glaube im Wandel. Einführungen in die Forschung am Alten Testament* (Berlin: Verl. Die Spur, 1971), 273을 참조하라.

43) H. Utzschneider, "...jetzt aber hat mein Auge dich gesehen" (Hi 42:5). *Das Hiobbuch in sthetisch-theologischer Perspektive*, C. Karrer-Grube et.al. (eds.), *Sprachen-Bilder-Klänge. Dimensionen der Theologie im Alten Testament und in seinem Umfeld* (FS R. Bartelmus: AOAT 359; Münster: Ugarit, 2009), 334를 참조하라.

44) G. Baumann, *룻*, 150을 참조하라.

(2) 자유로우신 하나님

욥은 친구들과와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을 전횡을 일삼고, 독재를 행하시는 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법칙/섭리(ἔσθι/에차)가 있음을 언급하신다. 하나님의 언설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상은 인간 중심주의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⁴⁵⁾ 가령, 욥기 38장 25-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없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지 않는 곳도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상들은 인간의 지배권과 인간의 영향력이라는 카테고리로는 적절하게 파악되고, 해석될 수 없다.⁴⁶⁾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⁴⁷⁾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과 질서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라, 법과 질서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는 자유로우신 분이다.

(3) 답변하시는 하나님

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했기에(욥 13:3.15 등),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욥기 서막(욥 1-2장)에서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욥에게, 그리고 욥과 함께 말씀하신다. 동시에 욥도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⁴⁸⁾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답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

45) J. Ebach, *Streiten mit Gott 2*, 130을 참조하라.

46) T. Krüger, "Gott und das Leid: Hiobs Botschaft", T. Krüger (ed.), *Kritische Weisheit: Studien zur weisheitlichen Traditionskritik im Alten Testament* (Zürich: Pano, 1997), 224를 참조하라.

47) R. Albertz, *Weltschöpfung und Menschenschöpfung. Untersucht bei Deuteronesaja, Hiob und in den Psalmen* (CTM A3; Stuttgart: Calwer Verlag, 1974), 143을 참조하라.

48) M. Köhlmoos, *뵈글*, 326을 참조하라.

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⁹⁾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상대자로 욥에게 나타나셨다. 멀리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눈을 돌리신 것이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언설은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욥을 복종케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욥의 돌이킴을 목적으로 한다. 욥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⁵⁰⁾ 그러기에 인간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하나님은 욥에게는 큰 위안과 위로가 된다.⁵¹⁾

(4) 초월하시는 하나님

욥은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과 그의 창조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욥의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관점을 교정해주시고, 확대시켜주시려 한 것이다.⁵²⁾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세상의 질서'를 보이시고, 모든 인간적인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수많은 예들을 제시하심으로 욥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셨다(욥 38:4-39:30)."⁵³⁾ 이것은 우주, 세상의 운행, 동물세계의 자연적인 욕구의 성취, 동물들의 특징과 능력의 수여로서의 세상의 창조와 인식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그러한 통찰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

49) K.-T. Ha, 윗글, 205를 참조하라.

50) H.D. Preu, "Offenbarung II", TRE 25 (1995), 127을 참조하라.

51) H.J. Hermisson, "Zur Schöpfungstheologie der Weisheit", H.J. Hermisson (ed.),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FA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84를 참조하라.

52) K. Schmid, *Hiob als biblisches und antikes Buch. Historische und intellektuelle Kontexte seiner Theologie*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10), 69를 참조하라.

53) G. Fohrer, "Gottes Antwort aus dem Sturmwind. Hi 38-41", ThZ 18 (1962), 11.

[하나님]처럼 알고, [하나님처럼]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⁵⁴⁾과 관련되어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동시에 ‘욥이 하나님과 같은지’(욥 40:2.8-10),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굴복시키라’(욥 40:11-14)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통찰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내야 한다.⁵⁵⁾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베헌과 리위야단을 통해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⁵⁶⁾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교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인간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저편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⁵⁷⁾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후에 욥은 그 자신이 너무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것이다(욥 40:4; 42:2).

3. 나가는 말

하나님 상은 욥기 전체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욥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상’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을

54) 윌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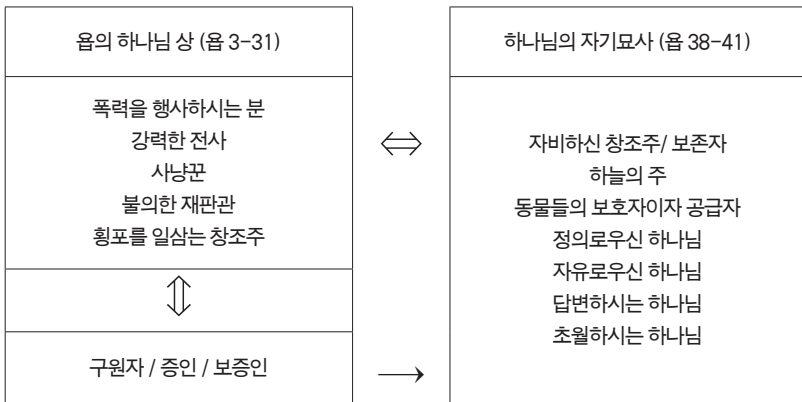
55) 윌클, 20을 참조하라.

56) H. Utschneider, 윌클, 333을 참조하라.

57) G. Freuling, "Wer eine Grube gräbt...". *Der Tun-Ergehen-Zusammenhang und sein Wandel in der alttestamentlichen Weisheitsliteratur* (WMANT 102; Neukirchner-Vluyt: Neukirchener Verlag, 2004), 230을 참조하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자신을 자비롭고, 섬세하신 세상의 창조주요, 보존자로 드러내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자유함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이다. 욥이 경험했고, 만났던 다양한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러내시고자 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상을 도표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욥 42:6). 이로써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고난과 혼돈 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욥의 하나님 상은 고난이

전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욥은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결코 서로 관련성이 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자연과학적 답변도 아니고, 세 시간동안의 자연학습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주제와 내용면에서 서로 밀접한 ‘질문과 답변의 구조’를 가진, 공동의 주제에 대한 대화이고,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안근조,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20집(2006년 4월), 147-166.

하경택, "욥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18집(2005년 8월), 105-127.

_____, "욥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22집(2006년 12월), 98-114.

Albertz, R., *Weltschöpfung und Menschenschöpfung. Untersucht bei Deuterotesaja, Hiob und in den Psalmen (CTM A3)* (Stuttgart: Calwer Verlag, 1974).

Bauks, M., "Der eine Schöpfer und die anderen. Die Motive von Schöpfung und Chaos als Hinweise auf die Transformation des Gottesbildes im Hiobbuch", L. Bormann (ed.), *Schöpfung, Montheismus und fremde Religionen. Studien zu Inklusion und Exklusion in den biblischen Schöpfungsvorstellungen (BThSt 9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99-124.

- Baumann, G., Gottesbilder der Gewalt im Alten Testament verstehen, (Darmstadt: WBG, 2006).
- Ebach, J.,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 _____,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6).
- Fohrer, G., "Gottes Antwort aus dem Sturmwind. Hi 38-41", ThZ 18 (1962), 1-24.
- _____,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erd Mohn, 1963).
- Gradl, F., Das Buch Ijob (NSK.AT 12)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 Ha, K.-T.,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HBS 46) (Freiburg / Basel / Wien: Herder Verlag, 2005).
- Heckl, R., Hiob – 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Hermisson, H.J., "Zur Schöpfungstheologie der Weisheit", H.J. Hermisson (ed.),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FA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69-285.
- Houtman, C., Der Himmel im Alten Testament. Israels Weltbild und Weltanschauung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3).
- Janowski, B., "Die Erde ist in die Hand eines Frevlers gegeben", H. Lichtenberger/H. Zweigle (eds.), Wo ist Gott? Die Theodizee-Frage und die Theologie im Pfarramt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1-18.
- _____,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Keel, O., Jahwes Entgegnung an Ijob. Eine Deutung von Ijob 38–41 vor dem Hintergrund der zeitgenössischen Bildkunst (FR–LANT 1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8).
- Kegler, J., “Gürte wie ein Mann deine Lenden!...”, Die Gottesreden im Ijob–Buch als Aufforderung zur aktiv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Leid”, H.M. Niemann/M. Augustin/W.H. Schmidt (eds.), Nachdenken über Israel, Bibel und Theologie (FS K.–D. Schunck) (Frankfurt/Berlin/Bern: Peter Lang, 1994), 217–234.
- Köhlmoos, M., Das Auge Gottes, (FAT 25) (Tübingen: Mohr Siebeck, 1999).
- Krüger, T., “Gott und das Leid: Hiobs Botschaft”, T. Krüger (ed.), Kritische Weisheit: Studien zur weisheitlichen Traditionskritik im Alten Testament (Zürich: Pano, 1997), 215–225.
- Lux, R.,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G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 Michel, D., Israels Glaube im Wandel. Einführungen in die Forschung am Alten Testament (Berlin: Verl. Die Spur, 1971), 252–276.
- Neumann-Gorsolke, U.,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anzeig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 Oeming, M., "Die Begegnung mit Gott", M. Oeming/K. Schmid,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BThSt 4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95–119.
- Preuß, H.D., "Offenbarung II", TRE 25 (1995), 117–128.
- Remus, M., Menschenbildvorstellung im Ijob–Buch (Frankfurt/New York: Peter Lang, 1993).

- Schmid, K., Hiob als biblisches und antikes Buch. Historische und intellektuelle Kontexte seiner Theologie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10).
- Schmitt, H.C.,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 Spieckermann, H., “Die Satanisierung Gottes. Zur inneren Konkordanz von Novelle, Dialog und Gottesreden im Hiobbuch”, I. Kottsieper et.al. (eds.), „Wer ist wie du, HERR, unter den Göttern?„. Studien zu Theologie und Religionsgeschichte Israels (FS O. Kais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431–444.
- Steiger, L., “Die Wirklichkeit Gottes in unserer Verkündigung”, M. Honecker/L. Steiger (eds.), Auf dem Wege zu schriftgemäßer Verkündigung (FS H. Diem) (München:Chr. Kaiser Verlag, 1965). 143–177.
- van Oorschot, J., “Menschenbild, Gottesbild und Menschenwürde – ein Beitrag des Hiobbuches”, E. Herms (ed.), Menschenbild und Menschenwürde (Güterloh: Chr. Kaiser/Gütersloher Verlaghaus, 2001), 320–343.

검색어

하나님의 상(이미지)

하나님의 정의

질문과 답변

행위회복관계

www.kci.go.kr

Gottesbild Hiobs

- Unter dem Aspekt von der Frage-und-Antwort-Struktur -

Chol-Gu Kang

Lecturer at Daeshin University

Tübingen University, Dr. theol.

In der Hiobforschung gibt es viele verschiedene Methoden.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gehört zu der jüngsten Tendenz, das ganze Hiobbuch unter dem Aspekt von der Frage-und-Antwort-Struktur zu verstehen. Eines der zentralen Themen, die unter dem Aspekt beobachtet werden, ist das Gottesbild Hiobbuches. Die vorliegende Arbeit thematisiert die Gottesbild zwischen Hiob und Gott unter dem Aspekt von der Frage-und -Antwort-Struktur.

Es gibt große Unterschiede bei den Gottesbildern zwischen den Aussagen Hiobs im Dialogteil und in den Gottesreden. Im Hiobbuch ist das Gottesbild so vielfältig und dynamisch, dass die Gegensätze des Gottesbildes vom Gewalttäter auf der Seite Hiobs und vom barmherzigen Gott auf der Seite Gottes aufeinander bezogen werden. Obwohl Hiob ein negatives Gottesbild hat, verzichtet er nicht auf die Hoffnung, Gott als Retter, Zeuge und Bürge zu erfahren. Damit kann er Gott begegnen und ein anderes Gottesbild als das, das er im Leiden erfahren hat, erleben. Als einzige und universale Gottheit ist Gott auch Schöpfer der Welt und Lenker der Welt und ihrer Geschichte. Gott ist

es, der das Leben gibt, bewahrt und fördert. Mit der neuen Einsicht in dieses Gottesbild hat Hiob Gott „nun in der persönlichen Begegnung geschaut und kehrt zu dem wahren Gott um (Hi 42:6).

Unter dem Aspekt von der Frage-und-Antwort-Struktur kann man beobachten, dass die Hiobreden im Dialogteil und die Gottesreden in Hi 38:1-42:6 ein Thema “Gottesbild” der gemeinsamen Themen haben.

Keywords

Image of God

Justice of God

Question and answer

Retribution

Speeches of God

■ 투고일: 2016년 12월 31일

■ 심사일: 2017년 2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16일